

## 양성평등 관점에 기초한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 분석

권치순<sup>1.\*</sup> · 김경희<sup>2</sup>

<sup>1</sup>서울교육대학교 · <sup>2</sup>서울은천초등학교

### An Analysis of Illustrations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based on The Gender Equality View-point

Chi-Soon Kwon<sup>1.\*</sup> · Gyung-Hee Kim<sup>2</sup>

<sup>1</sup>Seoul National University · <sup>2</sup>Seoul Euncheon Elementary School

#### ABSTA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llustrations in the elementary school textbooks which was followed by identifying the parts that displayed gender-discriminating elements or traditional gender rol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atio of man and woman in the figures appearing in those illustrations was 1.33:1, which means there were more men than women in the illustrations and that there was no balance in the gender distribution among the figures. 2) Male figures were presented as the protagonists in 39.7% of the illustrations, female figures in 25.5%, and both male and female figures in 34.8%.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ere much more illustrations in which men were the protagonists than those in which women were. 3) The occupations of the adults in the illustration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ratio of man and woman with a job was about 2:1, which implies that there were twice as many male professionals than female ones. Men had over 60 kinds of occupations and women had only 45 kinds of occupations with 59.5% of them concentrated in four jobs including teaching, farming and fishing, doing artistic works, and selling things. 4) The case analysis results of the illustrations in the textbooks demonstrate that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of a father and mother were followed and that there were gender stereotypes in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man and woman. Gender dichotomy was observed in the vocations. Men were the leading players in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ies, and most of the historical figures were men. Meanwhile, women were depicted as the subjects of economic activities and completely isolated and alienated from political, historical, and cultural activities. It turned out that the figures of the illustrations in the current elementary school textbooks had gender discriminating elements and profoundly reflected the stereotypes for gender roles.

**Key words** : illustration, gender distribution, gender dichotomy, gender role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성 역할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특정한 행위 규칙으로(이은경, 2000), 개인이 속한 문화가 성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이성현, 1994).

이러한 성 역할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시대가 변화에 따라 성 역할도 바뀌게 된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노동력을 대신해 기계적 생산 방식을 가져왔고, 다양한 직업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cskwon@snu.ac.kr

Tel: 82-2-3475-2459

Fax: 82-2-581-7711

학교 교육에서의 성 역할 사회화도 이러한 양성적인 인간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법제처, 1999). 여기에는 어느 특정한 성에 대하여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양성 정체감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교육부, 1999).

초등학교 교과서의 삽화 중 성 차별적 요소와 전통적 성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의 등장인물의 성별 비율은 어떠한가?

둘째, 삽화의 등장인물 중 주연으로 표현된 인물의 성별 비율은 어떠한가?

셋째, 삽화의 등장인물의 성별 직업 분포는 어떠한가?

넷째, 삽화의 등장인물의 성별 특성 및 성 역할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분석한 삽화는 선행 연구(공영주, 2004; 김찬우, 2005)를 참조하여, 삽화는 교과서의 시각자료 중 사진, 그림, 도해, 도표, 만화를 모두 포함시켰다.

### 1. 성 특성 고정관념과 성 역할 고정관념

사회적 성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 심리적으로 학습된 행동과 그에 준하는 기대를 뜻하며 남녀별로 다르게 기대되는 문화적 속성을 일컫는다. 즉, 사회적 성은 하나의 획득된 성별 정체감을 의미한다(김원홍, 이인숙, 권희완, 1999).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식대로 형성되어 간다. 대부분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주로 갖고 있는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여겨 왔으며 그 사회가 인정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바로 성 특성 고정관념이다.

임정빈, 정혜정(1997)은 성 역할을 어떠한 행위나 태도가 남녀별로 적절한가를 말해주는 문화적 기대치로 보았다. 문화 속에서 여성은 여성의 역할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을 가지고 남성은 남성의 역할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 가정이나 학교교육을 통해 이러한 기대가 전수되고 아동들이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 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성에 따라 다르다고 믿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 2. 전통적 성 역할과 양성 평등 교육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가장으로서의 남성과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을 규정하는 것이 전통적 성 역할이다. 여기서는 남녀의 성격 차이와 행동의 차이를 신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전통적 성 역할을 불가피한 귀속의 역할로 받아들인다(황은자, 1988). 전통적 성 역할에서 아버지는 양육의 책임자로서, 물질적 정신적 원동력 제공자, 사회적 지위를 가진 표본, 이성적 공정한 판단자인 반면, 어머니는 가족원의 원만한 인간관계 조력자, 가계 운영과 가계 실무자, 가사 관리의 주무 역할을 한다.

1960년대 이후 산업 사회로의 진전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감소시켰고 노동의 기계화로 인하여 남성의 신체적인 힘을 요구하는 직업보다는 남녀 모두가 훈련과 교육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였다. 이로 인해 남녀의 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변화시켰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며,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살아갈 수 있을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의 이념이나 제도는 성적 통합성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의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속성을 지닌 양성적 인간의 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며, 학교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3. 학교에서의 성 역할 사회화

성 역할은 어떠한 태도와 행위가 남성에게 또는 여성에게 적절한가를 말해주는 문화적 기대치로서, 이러한 성 역할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 성 역할 사회화이다. 이러한 성 역할 사회화의 요인으로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 직장 그리고 대중매체가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 역할 사회화는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학교가 추구하는 덕목에서 차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윤근섭, 1995).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재이다. 이러한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직업에 있어서도 남자들은 각종 일에 종사하고, 여자들은 주로 전형적인 가사를 돌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6).

이렇게 보면, 학교가 여러 면에서 전통적 성 역할을 강조하고 성차별을 재생산해 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최근 통계청(2007)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육아나 가사활동을 하는 남자 전업주부는 약 15만 명으로 2003년에 비해 42.2%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여성은 약 662만 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통적 성 역할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이러한 현실이 학교 교육에 보다 의미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4. 교과서 삽화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서 여기에 학생이 배워야 할 주요 학습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과정을 연결해주는 육교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탐구과정의 유도, 학습 동기 유발, 학습 자료의 제시, 연습문제 및 보충 학습 활동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에서 삽화는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그 역할이 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성연, 2002). 삽화는 아동들의 개념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삽화가 전달하는 정서적 효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성격 형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표본 양식으로서 행동 변화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삽화자료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학습하려는 동기를 강화시키기도 한다(신윤철, 임동원, 1993).

## II. 연구 방법과 절차

### 1. 분석 방법 및 기준

오재림과 정해숙(2002)의 양성평등 관점에 기초한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에서 제안한 초등 교과서 심의 기준안을 참고하여 양적 분석과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에는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 인원수와 비율, 성별 주연인물 수와 비율, 직업별 성별 인원수와 비율을 조사하였고, 사례 분석에서는 성 특성 고정관념과 성 역할과 지위, 성 고정적 놀이와 활동, 그리고 정치·경제·문화·역사 속에서의 성 차별적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2. 성별 등장비율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등장인물의 연령, 성별 인원수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사회과 탐구, 수학 익힘, 실험 관찰 등 보조 교과서를 제외한 전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 내용 중 목차에 실린 삽화는 각 단원에서 추출한 삽화와 중복되어 제외하였으며, 미술 교과서에 실린 참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인체 모형과 같이 학습 자료로 등장하는 인물도 제외시켰다. 또, 교과서 전체적으로 반복되어 등장하는 인물도 제외시켰다.

등장 인원수는 쪽을 기준으로 한 쪽에서 동일 인물이 반복해서 등장할 때에는 인원수 산출에 1회로, 동일 인물이 쪽이 바뀌어 등장 할 경우에는 2회로 포함시켰다. 배경으로 등장한 인물과 15인 이상의 군중은 인원수에서 제외하였으나, 한 쪽 성만으로 구성된 군중은 1인으로 산출하였다.

연령은 어른과 아이로 구분하였고, 아이는 연령이 만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어른은 만 18세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삽화 상의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아이로 포함시켰다.

성별과 연령의 구분은 등장인물의 생김새, 신체적 특징, 머리 모양, 옷, 장신구 및 소지품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도 식별이 어렵거나 신체의 일부분만 표현되어 변별이 어려운 경우와 아거나 특수 복장으로 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타에 포함시켰다.

### 3. 성별 주연비율

등장인물의 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주연으로 분류하고, 주연으로 표현된 사람의 성별에 따른 인원수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주연은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이야기 속 주인공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인물을 말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른 자세한 산출 방식은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주연 판단 기준

| 삽화 형태    | 주연 판단 기준 및 산출 방법  |
|----------|---|
| 남자만 등장   | 남자주연 삽화로 함.   |
| 여자만 등장   | 여자주연 삽화로 함.   |
| 남녀 모두 등장 | 남녀 모두 비중있는 인물로 나타난 경우는 공동주연 삽화로 함.<br>남자가 비중있는 인물의 경우는 남자주연, 여자가 비중있는 인물의 경우는 여자주연 삽화로 처리함.<br>비중있는 인물이란 이야기 속 주인공이나 글 속의 나로 표현된 인물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모임을 이끌어 가는 활동을 하는 등 리더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함. |

### 4. 성별 직업비율

등장인물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업의 판단은 등장인물의 복장, 사용 도구, 작업 유형, 배경 장소, 관련된 글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근대화 이전의 신분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의 왕이나 관리, 장군, 병사, 농부 등은 대부분 남자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격이 약하다는 판단에 직업 산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 1. 교과별 남녀 등장인물

초등학교 10개 교과목별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 비율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국어

국어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교과서 삽화 속 등장인물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특히 이야기자료가 많은 읽기 교과서는 그 차이가 특히 컸으며, 3학년(2.1:1)과 6학년(2.4:1)의 남자 등장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야기 속 주인공은 대부분 남자이고 전래 동화의 등장인물 또한 남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국어는 초등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며, 학교 수업시수를 가장 많은 교과로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때, 삽화의 구성이 양성 평등의 입장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국어 교과서가 사회 교과서 다음으로 남녀 성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2. 국어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비율<br>(남:여)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3  | 말하기, 듣기 | 129 (67.9) | 61 (32.1) | 214 (57.5) | 158 (42.5) | 23 | 1.57 : 1      |
|    | 쓰기      | 75 (71.4)  | 30 (28.6) | 176 (60.9) | 113 (39.1) | 6  | 1.76 : 1      |
|    | 읽기      | 149 (76.4) | 46 (23.6) | 174 (61.1) | 111 (38.9) | 8  | 2.06 : 1      |

|    |             |            |           |             |             |    |          |
|----|-------------|------------|-----------|-------------|-------------|----|----------|
| 4  | 말하기, 듣기, 쓰기 | 102 (65.0) | 55 (35.0) | 203 (57.0)  | 153 (43.0)  | 5  | 1.47 : 1 |
|    | 읽기          | 69 (58.0)  | 50 (42.0) | 119 (56.7)  | 91 (43.3)   | 6  | 1.33 : 1 |
| 5  | 말하기, 듣기, 쓰기 | 76 (58.0)  | 55 (42.0) | 174 (58.6)  | 123 (41.4)  | 7  | 1.40 : 1 |
|    | 읽기          | 143 (69.8) | 62 (30.2) | 173 (58.2)  | 124 (41.8)  | 5  | 1.70 : 1 |
| 6  | 말하기, 듣기, 쓰기 | 84 (56.4)  | 65 (43.6) | 210 (57.4)  | 156 (41.6)  | 18 | 1.33 : 1 |
|    | 읽기          | 124 (82.7) | 26 (17.3) | 156 (63.4)  | 90 (36.6)   | 3  | 2.41 : 1 |
| 합계 |             | 951(67.9)  | 450(32.1) | 1,599(58.8) | 1,119(41.2) | 81 | 1.63 : 1 |

2) 도덕

도덕 교과서 삽화 속 등장인물 수를 보면, 모든 학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인은 성별 등장비율이 1.48:1이고, 아동은 1.26:1로 성인에 비해 그 차이는 작지만,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았다. 도덕과의 전체 성별 등장비율이 1.26:1로 교과서 전체 평균인 1.33:1보다 작으나 양성 평등적 교과서라고는 볼 수 없다.

도덕 교과서는 도덕적 행동과 가치, 규범을 배우는 교과서의 특성상,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태도 등에는 도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태도는 아동들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도덕과의 성 형평성 있는 등장인물의 구성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도덕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 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3  | 98 (55.7)  | 78 (44.3)  | 176 (50.3) | 174 (49.7) | 6  | 1.09 : 1       |
| 4  | 159 (63.6) | 91 (36.4)  | 266 (54.7) | 220 (45.3) | 7  | 1.37 : 1       |
| 5  | 117 (56.8) | 89 (43.2)  | 140 (53.2) | 123 (46.8) | 8  | 1.21 : 1       |
| 6  | 164 (61.0) | 105 (39.0) | 129 (52.9) | 115 (47.1) | 18 | 1.33 : 1       |
| 합계 | 538 (59.7) | 363 (40.3) | 711 (52.9) | 632 (47.1) | 39 | 1.26 : 1       |

3) 사회

사회과 교과서는 성별 등장비율이 1.96:1로서 남자가 초등학교 10개 교과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회과에 대해 성 형평성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편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6학년 1학기 교과서의 경우, 남녀 등장비율이 약 5:1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의 사회로서 역사적 인물이 대부분 남성인 결과로 해석된다. 외국의 사회 교과서에서 여성의 다양한 사회 참여의 모습과 역사적 인물로 여러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여성 위인들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역할 모델로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공영주, 2004)을 생각해 볼 때, 여성 등장인물의 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을 주로 다루고 있는 5학년과 6학년 교과서에서도 남자 등장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성인남자의 등장비율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사회과에서 특히 남성 편중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 시민을 기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는 교과서의 편찬 과정에서 성간 형평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사회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 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3  | 215 (59.7)   | 145 (40.3) | 142 (54.0) | 121 (46.0) | 12 | 1.34 : 1       |
| 4  | 298 (59.4)   | 204 (40.6) | 186 (58.1) | 134 (41.9) | 8  | 1.43 : 1       |
| 5  | 328 (71.5)   | 131 (28.5) | 123 (63.1) | 72 (36.9)  | 20 | 2.22 : 1       |
| 6  | 759 (80.1)   | 189 (19.9) | 130 (52.2) | 119 (47.8) | 13 | 2.89 : 1       |
| 합계 | 1,600 (70.5) | 669 (29.5) | 581 (56.6) | 446 (43.4) | 53 | 1.96 : 1       |

4) 수학

수학 교과서의 남녀 등장비율이 1.34:1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며, 이는 국어와 사회과 다음으로 차이가 큰 것이다. 특히 3학년의 경우 남자가 1.49:1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은 남자가 잘 하는 교과, 남자의 교과라는 사회적 통념을 더욱 고착시킬 수 있으므로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편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5.** 수학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 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3  | 29 (69.0) | 13 (31.0) | 138 (58.2) | 99 (41.8)  | 19 | 1.49 : 1       |
| 4  | 34 (64.2) | 19 (35.8) | 114 (55.9) | 90 (44.1)  | 8  | 1.36 : 1       |
| 5  | 14 (58.3) | 10 (41.7) | 107 (55.2) | 87 (44.8)  | 8  | 1.25 : 1       |
| 6  | 16 (53.3) | 14 (46.7) | 148 (55.8) | 117 (44.2) | 1  | 1.25 : 1       |
| 합계 | 93 (62.4) | 56 (37.6) | 507 (56.3) | 393 (43.7) | 36 | 1.34 : 1       |

5) 과학

과학 교과서의 남녀 등장비율이 1.12:1로 비교적 균형있게 제시되었으며 학년에 따른 편차 역시 작고 모든 학년에서 비슷한 등장비율을 보였다. 특히 아동 등장비율은 1.05:1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한 삽화 내에서 남녀 수를 비슷하게 등장시키고, 1인 등장 삽화에서는 남녀를 번갈아 등장시키는 등 삽화 구성에서 성비를 알맞게 고려한 집필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2.13:1로 성별 등장비율의 차이가 컸다.

**표 6.** 과학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3  | 48 (69.6)  | 21 (30.4) | 269 (50.4) | 265 (49.6) | 1  | 1.11 : 1      |
| 4  | 28 (62.2)  | 17 (37.8) | 215 (52.3) | 196 (47.7) | 1  | 1.14 : 1      |
| 5  | 12 (60.0)  | 8 (40.0)  | 232 (51.7) | 217 (48.3) | 0  | 1.08 : 1      |
| 6  | 42 (73.7)  | 15 (26.3) | 207 (50.7) | 201 (49.3) | 0  | 1.15 : 1      |
| 합계 | 130 (68.1) | 61 (31.9) | 923 (51.2) | 879 (48.8) | 2  | 1.12 : 1      |

6) 체육

체육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은 1.05:1로 10개 교과 중 가장 균형을 잘 이루고 있었다. 남녀의 수를 비슷하게 구성하여 등장시키려는 집필 노력이 보였는데, 예를 들어 농구나 축구와 같이 남자 스포츠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 운동 종목에서도 여자 아동을 비슷하게 등장시키고, 태권도에서 남녀가 대결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하는 등 내용 구성이 양성 평등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학년 교과서에서는 0.75:1로 여자의 등장빈도가 남자보다 더 많았고, 3, 6학년은 남자의 등장빈도가 약간 많았으며, 5학년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 차별적인 요소도 일부 단원에서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6학년 체육 교과서에서, 게임활동 영역은 남자 217명, 여자 127명으로 남녀 비율이 1.7:1로 남자 등장비율이 훨씬 높으나, 표현활동 영역은 남자 58명, 여자 76명으로 남녀 비율이 0.76:1로 여자의 등장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체육 교과서의 무용과 체조 내용에 남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스포츠에서 남자 스포츠와, 여자 스포츠가 정해져 있다는 사고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7.** 체육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3  | 11 (52.4) | 10 (47.6) | 454 (53.5) | 395 (46.5) | 22 | 1.15 : 1      |

|    |            |           |              |              |     |          |
|----|------------|-----------|--------------|--------------|-----|----------|
| 4  | 22 (57.9)  | 16 (42.1) | 306 (42.2)   | 419 (57.8)   | 13  | 0.75 : 1 |
| 5  | 37 (56.9)  | 28 (43.1) | 524 (51.6)   | 491 (48.4)   | 57  | 1.08 : 1 |
| 6  | 65 (79.3)  | 17 (20.7) | 432 (53.2)   | 380 (46.8)   | 31  | 1.25 : 1 |
| 합계 | 135 (65.5) | 71 (34.5) | 1,716 (53.5) | 1,685 (49.5) | 123 | 1.05 : 1 |

7) 음악

음악 교과서는 남자와 여자의 등장비율이 1.31:1이었고 아동의 등장비율은 0.97:1로 비슷하였으나 성인은 약 2:1로 남자의 등장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5학년 교과서가 2.15:1로 남자의 등장빈도가 특히 많았으며, 특히 성인 남자는 26명, 성인 여자는 7명으로 약 3배나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악을 연주하는 사진 삽화에 연주자가 대부분 남자인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표 8. 음악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3  | 33 (61.1)  | 21 (38.9) | 55 (50.5)  | 54 (49.5)  | 5  | 1.17 : 1      |
| 4  | 31 (67.4)  | 15 (32.6) | 30 (42.3)  | 41 (57.7)  | 1  | 1.09 : 1      |
| 5  | 26 (78.8)  | 7 (21.2)  | 32 (61.5)  | 20 (38.5)  | 3  | 2.15 : 1      |
| 6  | 56 (65.9)  | 29 (34.1) | 32 (45.1)  | 39 (54.9)  | 2  | 1.29 : 1      |
| 합계 | 146 (67.0) | 72 (33.0) | 149 (49.2) | 154 (50.8) | 11 | 1.31 : 1      |

8) 미술

미술 교과서의 남녀 등장비율은 0.99:1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미술 교과에서도 다른 예체능 교과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실습 장면에서 남녀를 고르게 등장시키고 있었으나, 성인 남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등 양성 평등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표 9. 미술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3  | 0 (0.0) | 1 (100.0) | 22 (52.4) | 20 (47.6) | 0  | 1.05 : 1      |
| 4  | 0 (0.0) | 1 (100.0) | 13 (50.0) | 13 (50.5) | 1  | 0.93 : 1      |
| 5  | 0 (0.0) | 1 (100.0) | 30 (46.2) | 35 (53.8) | 0  | 0.83 : 1      |
| 6  | 0 (-)   | 0 (-)     | 26 (55.3) | 21 (44.7) | 0  | 1.24 : 1      |
| 합계 | 0 (0.0) | 3 (100.0) | 91 (50.6) | 89 (49.4) | 1  | 0.99 : 1      |

9) 실과

실과 교과서의 남녀 등장비율은 0.96:1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남자 50명, 여자가 66명으로 그 비율이 0.75:1로 여자의 등장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교과목의 특성상 가정생활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실과의 경우 전체 성비는 균형적이나 성인과 아동에서는 다소 편중된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실과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5  | 22 (38.6) | 35 (61.4) | 80 (50.0)  | 80 (50.0)  | 2  | 0.89 : 1      |
| 6  | 28 (47.5) | 31 (52.5) | 60 (53.6)  | 52 (46.4)  | 1  | 1.06 : 1      |
| 합계 | 50 (43.1) | 66 (56.9) | 140 (51.5) | 132 (48.5) | 3  | 0.96 : 1      |

### 10) 영어

영어 교과서는 남녀 등장비율이 1.09:1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아동의 경우 약 1.2:1로 남자가 약간 많았으나 성인은 0.6:1로 여자가 더 많게 나타났다. 여성 등장인물 229명 중 교사가 82명으로 여성 인물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장면애 가사 활동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모습이 많았다.

**표 11.** 영어 교과서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학년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3  | 10 (29.4)  | 24 (70.6)  | 196 (51.6)   | 184 (48.4)   | 5  | 0.99 : 1      |
| 4  | 30 (45.5)  | 36 (54.5)  | 205 (51.8)   | 191 (48.2)   | 4  | 1.04 : 1      |
| 5  | 30 (30.0)  | 70 (70.0)  | 432 (56.4)   | 334 (43.6)   | 12 | 1.14 : 1      |
| 6  | 69 (41.1)  | 99 (58.9)  | 471 (54.6)   | 391 (45.4)   | 17 | 1.10 : 1      |
| 합계 | 139 (37.8) | 229 (62.2) | 1,304 (54.2) | 1,100 (45.8) | 38 | 1.09 : 1      |

전체적으로 보면, 성별 인원수의 등장비율은 약 1.33:1로, 남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인의 등장비율은 1.85:1로 아동의 등장비율 1.16:1보다 그 차이가 컸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아동의 등장에서는 성비를 고려하여 삽화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성인에서는 남성 중심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교과목별로 보면, 과학, 체육, 미술, 실과, 영어 과목은 성별 등장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있게 나타났으나,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음악 교과목은 남성의 등장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등장인물이 많은 사회(총 3,349명), 국어(총 4,200명), 도덕(총 2,283명) 교과서의 성별 비율의 차이가 컸으며, 그 중에서 사회과가 1.96:1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어, 수학, 사회 교과목은 수업시수가 많아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교과서 삽화의 성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 12.**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의 성별 등장비율

단위 : 명(%)

| 과목 | 어른           |              | 아이           |              | 기타  | 성별비율<br>(남:여)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국어 | 951 (67.9)   | 450 (32.1)   | 1,599 (58.8) | 1,119 (41.2) | 81  | 1.63 : 1      |
| 도덕 | 538 (59.7)   | 363 (40.3)   | 711 (52.9)   | 632 (47.1)   | 39  | 1.26 : 1      |
| 사회 | 1,600 (70.5) | 669 (29.5)   | 581 (56.6)   | 446 (43.4)   | 53  | 1.96 : 1      |
| 수학 | 93 (62.4)    | 56 (37.6)    | 507 (56.3)   | 393 (43.7)   | 36  | 1.34 : 1      |
| 과학 | 130 (68.1)   | 61 (31.9)    | 923 (51.2)   | 879 (48.8)   | 2   | 1.12 : 1      |
| 체육 | 135 (65.5)   | 71 (34.5)    | 1,716 (50.5) | 1,685 (49.5) | 123 | 1.05 : 1      |
| 음악 | 146 (67.0)   | 72 (33.0)    | 149 (49.2)   | 154 (50.8)   | 11  | 1.31 : 1      |
| 미술 | 0 (0.0)      | 3 (100.0)    | 91 (50.6)    | 89 (49.4)    | 1   | 0.99 : 1      |
| 실과 | 50 (43.1)    | 66 (56.9)    | 140 (51.5)   | 132 (48.5)   | 3   | 0.96 : 1      |
| 영어 | 139 (37.8)   | 229 (62.2)   | 1,304 (54.2) | 1,100 (45.8) | 38  | 1.09 : 1      |
| 합계 | 3,782 (65.0) | 2,040 (35.0) | 7,721 (53.8) | 6,629 (46.2) | 387 | 1.33 : 1      |

## 2. 성별 주연비율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주연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 교과서는 남자와 여자의 주연비율이 약 2.2:1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아 10개 교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학년 읽기 교과서는 남자 주연비율이 전체의 63.9%나 되었는데 이는 전래 동화와 같은 문학 작품의 주인공을 대부분 남자로 설정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오재림과 정해숙(2002)의 연구에서도 국어 교과서 내용의 일반적 기술과 문학 작품의 여성비율이 각각 43.3%와 25.5%로 나타나 문학 작품 속에서의 남성 편중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도덕 교과서의 남녀 주연 등장비율은 1.67:1로서 도덕 교과서의 성별 등장비율(1.26:1)보다 다소 큰 차이가



알 수 있다.

사회과 교과서는 남자 주연비율이 46.1%, 여자 주연비율이 25.7%, 공동 주연이 28.2%로 나타났다. 10개 교과중 국어과 다음으로 남녀의 주연비율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학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수학 교과서의 남녀 주연비율은 1.34:1로서 성별 주연비율 (1.83:1)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3학년과 6학년의 경우, 남녀 주연비율의 차이가 2배 이상 되어 학년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교과서의 남녀 주연비율은 남자(31.0%)와 여자(25.8%)가 비교적 균형 있게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연이 43.2%로서 10개 교과 중 주연인물 선정이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교과서의 남녀 주연비율은 남자(33.4%), 여자(27.4%)가 1.22:1로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역 별로는 체조, 게임, 표현, 육상 부문은 남녀 주연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였으나, 보건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보건생활 장면에서 남자 주연 설정의 성격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음악 교과서는 남자 주연(34.2%), 여자 주연(25.2%), 공동 주연(40.6%)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으며, 미술 교과서는 남자 주연(11.1%), 여자 주연(40.0%), 공동 주연(48.9%)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높으나 전체적으로 등장인물 수가 적어서 다른 교과목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과 교과서는 남자 주연(28.1%), 여자 주연(28.9%), 공동 주연(61.0%)으로 나타나 10개 교과 중 가장 균등한 주연비율을 보였다.

영어 교과서는 남자 주연(27.0%), 여자 주연(21.0%), 공동 주연(52.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았으나 타 교과에 비해 비교적 균형 있게 설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의 성별 주연비율은 남자(39.3%), 여자(25.1%), 공동 주연(35.6%)으로 남자와 여자의 주연비율이 1.57:1로서 성별비율(1.33: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등장인물의 비율이 비슷한 교과서도 성별 주연비율에서는 남자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남자는 주인공 또는 주요인물로 묘사되고 여자는 주변인물로 그려진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삽화 제시 형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 중심의 사고가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과서의 삽화 제시는 자라나는 아동들의 성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교과서를 편찬할 때에 남녀의 등장인물의 수뿐만 아니라 남녀의 주연비율 면에서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3.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의 성별 주연비율

단위 : 명(%)

| 과목 | 남자 주연 (%)    | 여자 주연 (%)    | 공동 주연 (%)    | 합계    |
|----|--------------|--------------|--------------|-------|
| 국어 | 659 (49.9)   | 300 (22.7)   | 361 (27.3)   | 1,320 |
| 도덕 | 286 (47.7)   | 171 (28.5)   | 142 (23.7)   | 599   |
| 사회 | 731 (46.1)   | 407 (25.7)   | 447 (28.2)   | 1,585 |
| 수학 | 159 (39)     | 87 (21.3)    | 162 (39.7)   | 408   |
| 과학 | 307 (31.0)   | 255 (25.8)   | 427 (43.2)   | 989   |
| 체육 | 444 (33.4)   | 364 (27.4)   | 521 (39.2)   | 1,329 |
| 음악 | 53 (34.2)    | 39 (25.2)    | 63 (40.6)    | 155   |
| 미술 | 5 (11.1)     | 18 (40.0)    | 22 (48.9)    | 45    |
| 실과 | 40 (28.2)    | 41 (28.9)    | 61 (43.0)    | 142   |
| 영어 | 226 (27.1)   | 175 (21.0)   | 434 (52.0)   | 835   |
| 합계 | 2,910 (39.3) | 1,857 (25.1) | 2,640 (35.6) | 7,407 |

### 3. 성별 직업분포

초등학교 교과서의 성별 직업분포를 보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 수가 남자 203명, 여자 65명으로 남자 직업인의 비율이 여자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남자 28종, 여자15종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대통령, 외교관, 법률가, 교수, 학자, 경찰, 소방관, 군인, 기술자, 사업가, 예술가, 공예가, 종교인 등이

고, 여자는 주로 교사, 간호사, 은행원이었다. 이러한 직업의 성 편중성은 학생들의 직업 선호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진로 탐색에 있어 동성의 직업모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안혜영, 최경희, 1997) 남녀의 차등적 직업 제시 형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 수는 남자 131명, 여자 84명으로 남녀 비율이 약 1.6:1로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남녀의 차이는 작은 편이나, 직종은 남자(20종)가 여자(14종)보다 다양한 직종이 소개되었다. 성별 직업은 남자는 교수, 학자, 의사, 경찰, 군인, 기술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여자는 간호사, 교사, 예술가, 운동선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과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 수는 남자 779명, 여자 331명으로 그 비가 2.4:1로 남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남자는 대통령, 정치가, 국회의원, 교수, 학자, 의사가 절대 우위에 있고, 여자는 교사, 간호사, 약사, 상인, 은행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함으로써 양성 평등적 직업관에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 수는 남자 72명, 여자 19명으로 그 비가 3.8:1로서 10개 교과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 보면, 운동선수 38명이 모두 남자인데 이는 야구와 축구가 전통적으로 남성 운동으로 인식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의 수는 남자 76명, 여자 27명으로 그 비율이 약 2.8:1로 나타났다. 직종은 남자가 15종, 여자가 7종으로 균형 있게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의 수는 남자 34명, 여자 30명으로 그 비가 1.1: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 운동선수 등의 직종에서도 남녀 비율이 균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직업의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교과서가 편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의 수는 남자 76명, 여자 32명으로 그 비가 약 2.4:1로서 남성 편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서의 특성상 전체 직종 중에서 예술가가 6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남자가 48명으로 71.6%를 차지하여 예술가는 대부분 남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의 수는 교사 1명으로 너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예가, 서예가 등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과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의 수는 남자 16명, 여자 20명으로 그 비가 0.8:1로서 여자가 다소 높게 나왔으나, 대부분의 직종에서 남녀가 고르게 제시된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직업 교육의 본보기로 판단된다.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인의 수는 남자가 56명, 여자 95명으로 그 비가 0.6:1로서 다른 교과와 달리 여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전체 직업인 95명 중 교사가 82을 차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종별로는 상인, 간호사, 예술가, 군인, 경찰, 비행기 조종사, 의사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의 성별 직업인 수는 남자가 1,443명, 여자가 703명으로 그 비율이 약 2:1로 나타났다.

직업의 분포에 있어서도 남자는 대부분 대통령, 정치가, 국회의원, 법률가, 교수, 학자와 같은 사회 지도자로 묘사되고, 여자는 교사, 간호사, 은행원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성 차별적인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의사, 기술자, 경찰, 군인, 소방관, 농부, 광원, 사업가, 항공기 조종사, 종교인, 공예가, 우체부, 운전 기사와 같은 직업은 남자가, 교사, 간호사, 은행원과 같은 직업은 여자의 비율이 각각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성에 따른 직업의 이분법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다. 따라서 양성 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직종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업을 고르게 교과서에 제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14.**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의 성별 직업분포 단위 : 명(%)

| 직종   | 남자(%)     | 여자(%)    | 계   | (남:여)    |
|------|-----------|----------|-----|----------|
| 대통령  | 7 (0.5)   | 0 (0.0)  | 7   | -        |
| 정치가  | 134 (9.3) | 5 (0.7)  | 139 | 26.8 : 1 |
| 국회의원 | 72 (5.0)  | 16 (2.3) | 88  | 4.5 : 1  |

|              |             |            |       |          |
|--------------|-------------|------------|-------|----------|
| 법률가          | 18 (1.2)    | 3 (0.4)    | 21    | 6.0 : 1  |
| 교수, 학자       | 37 (2.6)    | 1 (0.1)    | 38    | 37.0 : 1 |
| 교장           | 5 (0.3)     | 2 (0.3)    | 7     | 2.5 : 1  |
| 교사           | 82 (5.7)    | 175 (24.9) | 257   | 0.5 : 1  |
| 의사           | 40 (2.8)    | 17 (2.4)   | 57    | 2.4 : 1  |
| 간호사          | 1 (0.1)     | 23 (3.3)   | 24    | 0.0 : 1  |
| 약사           | 1 (0.1)     | 2 (0.3)    | 3     | 0.5 : 1  |
| 연구원          | 37 (2.6)    | 16 (2.3)   | 53    | 2.3 : 1  |
| 경찰, 군인       | 126 (8.7)   | 18 (2.6)   | 144   | 7.0 : 1  |
| 소방관, 119구급대원 | 13 (0.9)    | 2 (0.3)    | 15    | 6.5 : 1  |
| 기술자          | 45 (3.1)    | 2 (0.3)    | 47    | 22.5 : 1 |
| 과학자          | 3 (0.2)     | 2 (0.3)    | 5     | 1.5 : 1  |
| 농부, 어부       | 204 (14.1)  | 67 (9.5)   | 271   | 3.0 : 1  |
| 임업, 목축업종사자   | 11 (0.8)    | 1 (0.1)    | 12    | 11.0 : 1 |
| 광원           | 10 (0.7)    | 0 (0.0)    | 10    | -        |
| 공원           | 51 (3.5)    | 37 (5.3)   | 88    | 1.4 : 1  |
| 상인           | 59 (4.1)    | 57 (8.1)   | 116   | 1.0 : 1  |
| 회사원          | 17 (1.2)    | 7 (1.0)    | 24    | 2.4 : 1  |
| 공무원          | 37 (2.6)    | 17 (2.4)   | 54    | 2.2 : 1  |
| 은행원          | 14 (1.0)    | 33 (4.7)   | 47    | 0.4 : 1  |
| 운전기사         | 14 (1.0)    | 1 (0.1)    | 15    | 14.0 : 1 |
| 공예가          | 36 (2.5)    | 1 (0.1)    | 37    | 36.0 : 1 |
| 우체부          | 7 (0.5)     | 0 (0.0)    | 7     | -        |
| 언론 및 방송인     | 9 (0.6)     | 7 (1.0)    | 16    | 1.3 : 1  |
| 사업가          | 22 (1.5)    | 2 (0.3)    | 24    | 11.0 : 1 |
| 단순노무자        | 59 (4.1)    | 24 (3.4)   | 83    | 2.5 : 1  |
| 예술가          | 68 (4.7)    | 63 (8.9)   | 131   | 1.1 : 1  |
| 모델, 배우       | 32 (2.2)    | 36 (5.1)   | 68    | 0.9 : 1  |
| 운동선수         | 113 (7.8)   | 51 (7.2)   | 164   | 2.2 : 1  |
| 종교인          | 15 (1.0)    | 1 (0.1)    | 16    | 15.0 : 1 |
| 사냥꾼          | 10 (0.7)    | 0 (0.0)    | 10    | -        |
| 요리사          | 7 (0.5)     | 1 (0.1)    | 8     | 7.0 : 1  |
| 비행기조종사       | 4 (0.3)     | 1 (0.1)    | 5     | 4.0 : 1  |
| 기타           | 23 (1.6)    | 13 (1.8)   | 36    | 1.8 : 1  |
| 합계           | 1,443 (100) | 704 (100)  | 2,147 | 2.0 : 1  |

#### 4. 교과서 삽화의 사례 분석

##### 1) 성별 특성

남녀의 행동과 태도, 표정 등이 서로 다르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남자는 적극적이고 지배적인 모습으로 여자는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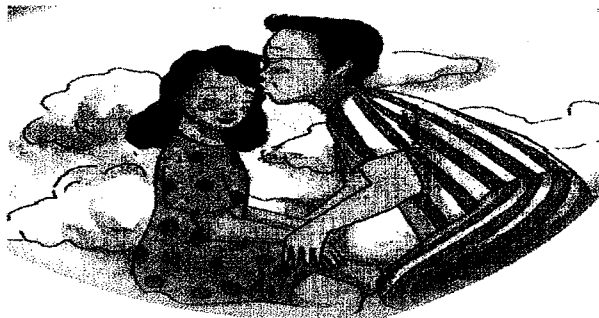


그림 11. 구에에 적극적인 남자와 소극적인 여자 (과학 4-2, 19쪽)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남자는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남자의 적극적 특성과 여자의 소극적 특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삽화는 성 역할 사회화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남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편견을 심어주고, 그 특성을 학습시킴으로써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화 된 사고를 정형화하고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교과서의 여러 삽화에서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행동과 표정이 남자 아이는 공격적이고 개구쟁이로 여자 아이는 겁 많고 연약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2) 성 역할과 지위

가정생활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과 가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해숙과 정경아(1998)는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 절반이 직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어머니를 가정 일을 하는 사람, 아버지를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이분화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남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 정치를 이끌어 가는 사람, 의료 행위의 주체 등으로 그려지는 반면,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간호사와 같이 의료 행위의 보조자로 묘사되고 있어서 성 역할과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남자를 비교 우위로 표현한 점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볼 때 성 역할과 지위에 대해 학생들에게 편견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2. 대화하는 가족과 설거지하는 어머니 (과학4, 96쪽)



그림 13. 아픈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도덕1, 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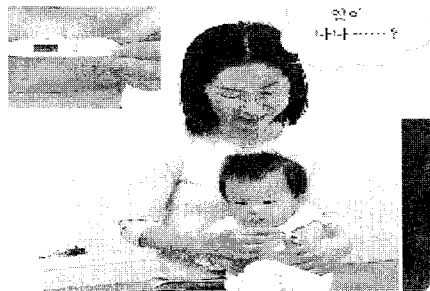


그림 14. (과학3-1, 45쪽)



그림 15. 의사=남자 (과학3-2, 85쪽)



그림 16. 간호사=여자 (사회3-1, 55쪽)



그림 17. 도청의 기관장=남자 (사4-1, 112쪽)



그림 18. 교장의 기관장=남자 (사회4-1, 121쪽)

또한 우리나라 역사 속의 주요 인물로 남자는 석주명, 김만중, 박제상, 조식, 김구, 정약용, 장기려, 안창호, 이홍근, 남궁억, 안익태, 장보고, 단군, 온조, 왕건, 강감찬, 조현, 서희, 장지연, 김옥균, 홍선대원군, 지석영, 의천, 이성계, 세조, 세종, 이순신, 김옥균, 최계우, 김홍집, 서재필, 고종, 최익현, 민영환, 이승호, 안중근, 박은식, 주시경, 이봉창, 윤봉길 등 40 여명이 등장하는 반면, 여자는 유관순 한 명만 제시되었다.

외국의 역사적 인물로는 남자가 베토벤, 링컨, 제임스 카필드, 노자, 공자, 피테, 프랭클린, 소크라테스, 칸트, 아르키메데스 등 10명이고, 여자는 나이팅게일, 홀트 여사, 퀴리 부인 3명이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행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는 최근의 내용은 물론 역사 속 인물조차 대부분 남성 위주로 기술되어 있으며, 그 역할과 지위도 남자는 주체 또는 주연으로 여자는 보조자 또는 조연으로 그려져 있음이 밝혀졌다. 교과서는 우리의 꿈과 이상을 담은 청사진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과정의 가교 역할을 한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편찬되는 새 교과서는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양성 평등의 이념과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밝혀진 문제점들이 새 교과서에 의미 있게 반영되어 남녀의 평등사상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V. 결론 및 제언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삽화를 성 차별적 요소와 내용을 추출하여 성별 비율, 주연인물, 직업인의 수와 성비, 성 역할과 지위 등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교과서에 나오는 총 등장인물의 남녀 성별비율이 약 1.33:1로 남자가 약 30%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균형이 비교적 양호한 교과로는 과학, 체육, 미술, 실과, 영어 순이었고, 남자 비율이 높은 교과는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음악 순이었다. 남녀 성별비율이 특히 큰 교과서의 삽화 제시 방법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등장인물의 성별 주연비율은 전체적으로 남자가 39.7%, 여자가 25.5%, 공동 주연이 34.8%로, 남자 주연비율이 여자보다 약 14.2% 높게 나타났다. 주연비율이 비슷한 교과는 실과이었고, 나머지 다른 교과는 남자 주연비율이 다소 높아 남성 위주의 인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서에서의 주연인물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성 역할과 지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 교과서에 주연비율을 고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장인물의 성별 직업인 수의 남녀 비율은 약 2:1이고, 직종 수에서 남자는 60종, 여자는 45종으로서 남자의 직종이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남자의 직업은 농·어부 204명(14.1%), 정치가 134명(9.3%), 경찰·군인 126명(8.7%), 운동선수 113명(7.8%), 교사 82명(5.7%), 국회의원 72명(5.0%) 순으로 비교적 고른 직업 분포를 보였으나, 여자는 교사 175명(24.9%), 농·어부 67명(9.5%), 예술가 63명(8.9%), 상인 57명(8.1%)으로 나

타나 직업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장인물의 직업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교과서 삽화 제작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삽화 내용에서 남자는 가정과 경제를 책임진 직업인의 주체 또는 주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도권 역할을 하는 사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람 등으로 표현되고, 여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사노동자, 직업 사회에서 보조자 또는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 소극적이고 부드러운 사람 등으로 묘사되어 남녀의 특성과 성 역할을 이분화한 성 고정 관념적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종으로 남자는 정치가, 행정가, 학자, 군인, 의사, 소방관, 경찰, 기술자, 육체노동자, 도예가 등이고, 여자는 교사, 간호사, 은행원, 시장 상인 등으로 나타나 남성 위주의 성 고정 관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의 인물 구성은 전반적으로 성 차별적이고 성 역할 고정 관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양성 평등적 사고와 건전한 시민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교과서에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성 차별적이고 성 역할 고정관념의 문제는 비단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자아의 성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교과서를 중심으로 유아 교육 및中等교육의 양성 평등 실태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공영주(2004). 양성평등 교육의 관점에서 본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기의 초·중등학교 과학교과서 삽화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부(1999). 양성평등 학교 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학교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교육부.
- 김성연(2002).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교과서의 삽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원홍, 이인숙, 권희완(1999).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찬우(2005). 제7차 교육과정 과학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고정적 표현에 대한 여학생들의 의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법제처(1999). 남녀 차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06915호. 법제처.
- 안혜영, 최경희(1997). 초·중등 과학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별 편중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 제34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 전북대학교.
- 오재림, 정해숙(2002). 양성평등 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성현(1994). 초등학교 아동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경(2000).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의 성 역할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정빈, 정혜정(1997). 성 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통계청(2007). 활동상태·성별 비경제 활동인구. 통계청.
- 황은자(1988). 성교육 담당 교사의 성 역할 고정 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 학생지도연구. 성심여자대학교.
- 한국여성개발원(1986). 중등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 역할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윤근섭(1995). 여성과 사회. 서울: 문음사.
- 신윤철과 임동원(1993). 교과서 삽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 초등교육연구 제3집. 5-20.
- 정해숙(2002).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정해숙과 정경아(1998).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 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